

# 어두운 세상 밝히는 '작은 나눔'

아동센터 아이들 저금통 기부  
광덕고생들 네팔 아동 돕기  
가족모임 비용 생리대 지원  
익명 천사 동구에 쌀 100포



'최소실 게이트'와 장기화된 경기침체, '김영란법'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 지역민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나눔의 소식'이 함께 어려울 살아가는 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나눔의 계절'에 돼지 저금통을 갈라 동전을 기부한 초등학생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을 놓고 간 익명의 천사, 가족모임 비용을 어려운 청소년 생리대 비용으로 내놓은 진목모임 등이 실천하는 나눔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광덕고등학교 기숙사 1, 2학년 학생 82명은 지난 21일 2명씩 짝을 이뤄 광주 시청, 광주서부경찰서, 일곡 현대병원 등 지역 20개 기관을 돌며 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날 모금은 광덕고 기숙사 학생들이 세계 빈곤국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돕기 위해 올해 세운 '실천적 기부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금한 돈을 국제 민간구호 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팔 아이들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광덕고 기숙사 학생들은 앞서 월드비전 '지구촌 희망 찾기 캠페인-사랑의 방 저금통'에 참여, 216만6460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북구청에서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의미 있는 기탁

군것질 비용을 아끼고, 착한일을 해 받은 용돈을 아껴 돼지저금통에 저축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서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왼쪽). 구두담이 기부천사 김씨부부의 돼지저금통(오른쪽 위). 20일 익명의 기부천사로부터 동구청에 배달된 쌀 100포(1포 20kg).

식이 진행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진목모임 '수(秀) 사랑' 회원들은 이날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생리대 130세트와 쌀 57포(1포 20kg)를 구청에 전달했다. 당초 연말 가족모임 비용으로 모았던 회비 370만원으로 마련했다. 최웅철(북구청 직원) 봉사단장은 "회원들의 가족을 초청해 송년회를 하기 위해 올 한해 모은 회비"라며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사용한 청소년 등 올 한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 가족모임 대신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서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돼지저금통 배를 갈랐다. 군것질 비용을 아끼거나 착한 일을 해서 받은 용돈 100원, 500원을 저축해 배를 불린 저금통이다. 아이들은 아동센

터에서 다 풀고 난 학습지를 팔아 얻은 수익금과 직접 만든 목도리를 판매한 돈을 합해 지난 21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6만1720원을 기부했다.

지난 20일 동구청에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보낸 쌀 100포(1포 20kg)가 배달됐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해부터 식자재업체를 통해 벌써 6번째 550포의 쌀을 보내왔다. 식자재업체 관계자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고,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말만 남겼다"며 "같은 분은 맞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 쌀을 내년 설 명절에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두담이 기부천사'로 알려진 북구 용봉동 김주술(55·최영심(56)씨 부부)의 선행도 12번째 이어지고 있다. 김씨 부부는 2005년부터 구두를 닦거나 수선해 번 금액의 10%를 구두 수선방 한

쪽에 마련된 돼지저금통에 모았다가 1년에 2~3차례 북구청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오고 있다. 모금회에 낸 금액만도 116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부부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좋은 일에 써달라"며 저금통에 몇만 원을 기부하는 손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노인들도 쌀짓돈을 모아 만든 2700만원을 전남도청에 기탁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전남지역 경로당에 '꿈꾸는 청춘 저금통' 600개를 설치해 자발적 모금운동을 펼쳤다. 시·군별로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 전남도는 기탁금을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해질 17:25  
달출 01:55 달짐 13:45

### 쌀쌀한 날씨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고 눈이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 오는 날	2/4	보성	흐린뒤 맑음	1/5
목포	비 오는 날	2/5	순천	비 오는 날	2/6
여수	흐린뒤 맑음	3/6	영광	비 오는 날	1/3
나주	비 오는 날	1/4	진도	구름맑음	2/5
완도	구름맑음	3/5	전주	구름맑고 눈	0/3
강진	구름맑고 눈	0/4	군산	구름맑고 눈	0/2
강남	구름맑음	2/5	남원	구름맑고 눈	0/2
장성	비 오는 날	2/5	축산도	비 오는 날	3/5
장성	비 오는 날	1/3			

### 바다 날씨

지역	암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서~북서	2.0~4.0	북서~북	2.0~4.0	
남해	남바다	서~북서	3.0~5.0	북서~북	2.0~4.0	
남해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2.0~3.0	서~북서	2.0~3.0
		면바다(서)	서~북서	2.0~4.0	서~북서	1.5~3.0
남해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2.0~4.0	북서~북	2.0~3.0
		면바다(서)	서~북서	2.0~4.0	북서~북	2.0~3.0

###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 주간 날씨

날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날씨	☀	☁	☁	☀	☀	☀	☀
기온	-1/7	-2/10	5/8	2/4	-3/6	-1/6	-2/6

## 광주·전남 기온 뚝...최고 5cm 눈

23일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3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1~5cm다. 24일에는 곡성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있고, 산간도로나 교량의 경우 어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

## '역주행 다발' 화순 쌍봉교차로 입체화 착공

역주행 사망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화순 이양면 국도29호선 쌍봉교차로가 입체화된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14년 6월 역주행 교통사고 이후 한시적으로 폐쇄된 국도 29호선 쌍봉교차로의 개선공사를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평면교차로였던 쌍봉교차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2건의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신호기가 철거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등 교차로가 한시적으로 폐쇄됐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성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화순 방향 2.5km에 위치한 송정교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국도사무소는 최근 사업비 34억원

### ■ 화순 국도29호선 쌍봉교차로



을 확보해 쌍봉교차로 개선공사가 착공했다. 오는 2018년까지 보성 방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하통로와 교량을 신설하는 등 입체화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 회식 대신 이웃돕기...차분해진 송년회

공공기관, 생략하거나 점심 대체...춧불집회 참석·봉사활동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송년회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부어라, 마셔라' 식의 연말모임보다는 직원들 간 소통하거나 이웃을 돕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고, 젊은층 사이에서는 주말마다 열리는 춧불집회 이후 송년회를 치르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바뀌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장은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조촐한 송년회를 진행하고 있다. 홍보전산과 등 몇 개 부서는 여수선한 시국을 감안해 별도의 송년회를 생략했고, 총무과 등은 연말연시 술자리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점심 식사로 송년모임을 마쳤다. 북구청장은 또 '사랑나눔 봉사활동'으로 내년 시무식을 치르기로 했다. 각 부서별로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복지관을 찾아 배식과 청소 등 봉사활동

을 할 계획이다. 서구청장은 지난 21일 직원 장기자랑과 영화관람으로 송년회를 대신했다. 서구청장은 이날 퇴근 후 직원들의 댄스 공연, 악기 연주 등 장기자랑 행사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부서별로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해 전 직원에 관람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여수선한 시국을 감안해 검소하고 소박한 문화행사로 송년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춧불집회도 송년회 문화를 바꾸었

다. 봉사활동으로 송년회를 대신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회사원 김유진(여·27·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지난 10일 금남로에서 열린 7차 광주시국춧불대회에 참가했다가 지인들과 조촐한 송년회를 치렀다. 김씨는 "송년모임 대화 주제도 대부분 시국과 춧불에 관한 것"이라며 "주말이면 춧불집회에 들었다가 송년회를 하러 가는 젊은 친구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양예리(여·27·북구 운암동)씨는 오는 27일 광주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양씨는 "연말연시 약속이 많기는 하지만 시간을 내서 유기견을 돌봐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